

는 것은 미친 것이다.

76. 우리의 주장은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77. 성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을 동시에 모독하는 것이다.

78. 우리의 주장은 지금의 교황, 또는 어떤 교황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복음과 여러 능력 그리고 치유의 은사 등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79. 교황의 성의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80. 그러한 말을 퍼뜨리는 감독, 사제 그리고 신학자들은 다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81~91 : 평신도로서의 면죄부 반대

81. 이 무분별한 면죄부의 강조 때문에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세인들의 중상 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부터 교황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82. “교황이 교회를 세우는 데 드는 하찮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영혼을 구속한다고 한다면, 그는 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거나, 또는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옥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가? 후자는 가장 사소한 것이 아닌가?”

83. 또, “이미 구속받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데, 왜 죽은 자의 장례 미사나 기념 미사는 계속되는가? 또, 왜 교황은 그러한 이유에서 바쳐진 기부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의 취소를 허락하지도 않는가?”

84.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원수 된 사람이라도 돈만 내면 연옥으로부터 경건한 영혼을 구하도록 허락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고 은혜로만 온전히 구원하지는 않는다면, 무엇이 새로운 신성함인가?”

85. 또, “이미 오래 전에 취소 되었고,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회죄총칙(悔罪總則)이 왜 면죄부 판매를 통해 아직도 살아있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가?”

86. 또,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Crassus)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7. 또,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88. 또,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면과 축복을 하루에 백 번을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89.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 돈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면, 왜 그는 지금까지 행해 온 똑같은 효력을 갖는 사면과 특사를 중지하는가?”

90.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오직 힘으로만 억누르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소치 않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적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91. 그러므로 면죄부가 교황의 마땅한 뜻과 생각에 따라 설교된 것이라면, 이 모든 의문들은 이미 해결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 의문들 모두는 이미 없어져야 했을 것이다.

92~95 : 면죄부 판매 동기의 잘못 지적

92.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떠날지이다.

93.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을 것이다.

94.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라도 부지런히 따르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95. 이를 통해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1517년 종교개혁 마틴루터의 95개조 반박문

Martin Luther's 95 Theses

1~7 : 서론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4:17)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2.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3.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inner repentance)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4.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형벌, 즉 참된 내적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5.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

6. 교황은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처럼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의 권한을 넘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 사하여지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상자인 사제의 권력에는 복종하면서도 그밖의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

8~29 : 연옥에 있는 자의 사면문제

8. 속죄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그 법에 따라, 죽은 자의 죄가 사하여질 수는 없다.

9. 그러므로 교황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께서는 죽음과 곤고함의 항목을 예외로 취급하는 교황의 교령(敕令)에서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행하신다.

10. 죽은 자들에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 법적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은 무지하고 사악한 이들이다.

11. 교회의 법의 법을 연옥의 벌로 바꾸는 가라지가 감독들이 자는 동안에 분명히 뿌려졌다(마 13:25).

12. 이전에 교회법 상의 벌은 진정한 회개의 시금석으로서 사면 후가 아니라 그전에 가해졌다.

13.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법에 관련한 이미 죽었으며 그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갖고 있다.

14.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 불완전한 경건이나 사랑은 반드시 커다란 불안을 수반한다.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두려움은 더욱 크다.

15. 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의 공포이므로 연옥의 형벌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16.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차이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구원의 확신간의 차이와 같다.

17.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두려움이 감소하여야 하며, 사랑은 증가하여야 할 것 같다.

18. 또 연옥에 있는 영혼이 공과(功過)의 영역 밖에 있는지, 즉 사랑을 더 입을 수 없는지의 여부는 이성으로도,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는 것 같다.

19. 우리가 가진 구원의 축복에 관해서는 확신하고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지만, 연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어 보인다.

20.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형벌의 무조건적인 사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실제로 모든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할 수 있는 형벌에 국한되는 것이다.

21.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만 받는 것이다.

23. 모든 벌의 사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가장 완전한, 즉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될 뿐일 것이다.

24.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하고도 무분별한 약속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북교회

25. 교황이 연옥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 영향력은 주교나 사제가 자신의 교구에 대해 갖는 특별한 영향력에 상응하는 것이다.

26. 교황은 실제 자신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열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다.

27. 돈이 연보궤에 깔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8. 돈이 연보궤에 깔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29. 성 세베리누스(St. Severinus)와 성 파살(St. Paschal)에 관한 전설에서처럼,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누가 알겠는가?

30~80 : 살아있는 자의 사면 문제

30. 누구도 자신의 회개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속죄의 완전성 여부는 더욱 더 확신할 수 없다.

31.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32. 면죄부를 산 것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33. 교황의 사면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4. 왜냐하면, 그 사면의 은혜는 오직 인간에 의하여 정해진 예전적인 사죄행위에 대한 형벌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5.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속량하거나 고해신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허가증을 사려는 이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36.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37.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

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축복과 용서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6조]에서 언명했듯이, 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39. 아무리 박식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면죄부와 동시에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40.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 값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면죄부는 벌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벌 받기 싫어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는 벌 받기를 싫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1. 사도적 면죄(교황의 면죄를 의미)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들보다 더 낫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42. 교황이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43.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44. 사랑은 행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선해지나, 면죄부를 통해서는 인간이 선해질 수 없고 단지 벌을 면할 뿐이기 때문이다.

45.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면서도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46.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의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하여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에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7.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자유선택의 문제이지,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48.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죄해주는데 있어서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9.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의 면죄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50.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죄부 교사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그 가족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당이 새로 변하기를 원했을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51.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은 면죄부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많은 이들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돈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며 또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2.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53.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54.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55.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백 단어, 백 문장, 백 개의 구문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56. 교황이 면죄부를 둔 교회의 보물 창고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57.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굶어모을 뿐이기 때문이다.

58. 이 보물 창고는 또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 없이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사람에게는 은혜를, 겉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기 때문이다.

59. 성 로렌스(St. Laurence)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그 당시 말의 어법에 따른 것이다.

60.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보물이라는 우리의 말은 충분히 속고한 결과이다.

61.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교황의 권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벌과 재판을 면해주기에만 충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2. 교회의 진정한 보물 창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63. 하지만 이 보물 창고는 가장 싫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는 처음 된 자를 나중 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마20:16).

64. 한편, 면죄부의 보물 창고는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나중 된 자를 처음 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65.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의 보물 창고는 예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낚던 그물이었다.

66. 이 보물 창고는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67. 선동가들이 최고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면죄부는 실제로는 면죄부가 이익을 증진시킬 때에만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68.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신앙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무의미한 은혜에 불과하다.

69. 감독과 사제들은 교황 면죄부 사절들을 기꺼이 그리고 매우 경건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70. 하지만 그들은 이 사절들이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도록 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71. 사도적 면죄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이는 파문되어야 한다.

72. 하지만, 면죄부 사절의 욕심과 방종을 경계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73. 어떤 방법으로든지 면죄부 판매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황은 당연히 책망하려고 할 것이다.

74. 하지만, 교황은 이보다는 더욱 더 거룩한 사랑과 진리에 해를 도모하기 위한 구실로 면죄부를 사용하는 이들을 꾸짖기를 원한다.

75. 면죄부를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를 범했다 할지라도 면죄부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